

간 호 원 과 경 제 문 제

〈연세 간호대학〉 김 모 임

간호사업의 발전은 간호원의 사회적, 경제적, 전문직업적 지위향상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경제 체제 속에서는 전문직업인이거나 일반 직업인이거나 간에 그들의 안녕은 경제적 보장 없이는 존속키 어렵다는 것은 새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 따라서 간호원이라는 전문직업인의 안녕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간호사업이 전문직업적 지위로서 그 책임을 이행하며 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상적 간호원을 교육 배출하는데 따른 경제적 지위 보장과 향상은 현 시점에서 필수적인 요구이며 또 자연적인 법칙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런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원은 어떠한 경제적 위치에 처해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자신과 증거를 가지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처하며 답할 수 있어야겠읍니다. 간호원과 경제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은 회원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나외 제한된 식견으로는 우리나라 간호협회나 지회 총회 사상 처음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국가발전에 수반되는 간호사업 발전을 위해 경제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기회를 마련하신 서울시간호협회 총회준비위원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이번을 계기로 회원 모두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문제에 관한 생각을 일깨움으로서 간호사업의 경제사에 의의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원들의 경제적 위치는 이에 관한 실태조사서나 보고서를 보지 않더라도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런 오늘의 그런 현실을 가져온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근원은 간호사업이 가진 일관적인 문제와도 같을 수 있으며 그 문제의 해결이 곧 경제문제의 해결에 쟁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간호사업 자체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외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여건에 따른 문제요 둘째는 내적 원인으로 간호사업 자체내에 있는 직업적 문제라 하겠읍니다. 외적 사회적 원인은 사회적 환경의 변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간호사업의 내적 직업적문제가 제거됨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되기에 오늘은 우리 간호사업 자체내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저 합니다. 이 문제들은 물론 간호사업에 일하는 개개인의 확고한 신념과 태도의 변화 열의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년전 전국 간호학교 학술연구 발표회장에 주머만한 글씨트 써 붙였던 “간호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라는 표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간호사업은 돈을 버는 것보다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우선되는 목적이라고 강조하는 애기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에 봉사한다는 사명은 비단 간호사업에 국한되는게 아닙니다. 모든 전문직업 또는 일반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

는 사명을 다 갖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물론 희생과 봉사를 직업의 철학으로 하는 것은 간호사업이 가지고 있는 유산 중에 가장 귀하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기를 바라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문제로 삼는 것의 핵심은 직업이 인정되지 않는 직업적 사명이 가능하냐 라는 말입니다. 직업을 무시하고 사명을 내세우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보수와 근무조건에서도 간호활동을 감수하는 것이 간호사업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인가요? 왜 우리는 동료끼리 모여 앉아 대우나 보수에 대해 부당하다든가 개선되어야 한다니 왈카왈부하면서도 직접 실무자와의 토론이나 해결방안은 회피하며 “적당히 하다가 싫으면 그만 두지”하는 소극적이고도 안일한 방법만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백의의 천사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금전문제를 따지는 것은 치사하니까…… 하는 생각인가요? 이런 불분명한 우리의 태도가 간호원의 경제적 지위나 간호사업이 담보될 계속하게 된 암적 요소인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전문직업으로 서의 경제적 보장이 선택되어진 사명감만을 갖고 날로 발전하는 정치, 경제사회에서 간호사업이 존속할 수 있을런지가 의문입니다.

간호원과 경제문제가 구체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성장하지 못한 원인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초창기 간호사업은 선교사업으로 시작되어 경제문제의 논의는 고사하고 간호활동을 경제산업 활동으로 생각해 본 일도 없는 과거 역사에 있습니다. 또 여성만의 직업으로 여성이 증속적인 위치에 있었던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에 있습니다. 더구나 간호교육이 값싼 노동력 제공을 요구하는 병원 부속기관에서 시작되었다는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와서 간호사업 역사의 잘 잘못을 논하자는 것도 아니며 또 어떤 전문직업이던 그것은 그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다만 여기 문제시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 낡은 전통을 고수하려 하느냐는 점입니다.

간호원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반노력이

수십년 전에 이미 시작된 다른나라 간호제에 비교하면 늦은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국제 간호협회에서는 1925년 헬싱키 국제 간호원회에서 간호원 경제복지에 관해 논의하였고 1927년에는 국제 노동기구를 통해 실제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1946년 미국 간호협회는 “경제보장 프로그램 (Economic Security Program)”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경제보장 프로그램의 기초 사업내용을 보면

- 1) 월급 및 유급휴일, 휴가, 병가, 내금, 시간의 수당, 직무 교대수당, 사회 및 의료보험 혜택을 포함한 총괄적 보장제도
 - 2)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련된 협정 체결 방안
 - 3) 간호원에 대한 고용주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해고 방지.
 - 4) 간호사업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당한 감득을 배제함으로써 간호원 자신의 자율적 통제 방안
 - 5) 법률에 의한 전국 간호원의 보호대책
 - 6) 경제보장에 관한 연구 및 출판사업
 - 7) 경제문제를 토의하며 이행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와 보장 등이다.
- 전통적 절대성과 독재성에 도전했던 모든 움직임이 그렇듯이 위와 같이 간호원의 경제보장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통렬한 비판과 반대가 빚달치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중에서 간호사업과 간호원의 경제적 실정이 어떻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져야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호원의 경제적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생산성에 경제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정책자 들이나 일반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제기가 될

오르 됩니다.

현재 간호사업을 위한 정책수립 및 계획과 수행의 의무를 맡고 있는 간호행정가나 책임자가 기관의 예산중 간호사업 예산 책정을 위해 어느 정도 행정가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 예산 관계에서도 간호사업 예산 책정을 위해 간호원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실로 큰 의문입니다. 별로 참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면 간호 고위행정가들의 무성의에 기인된 것일까요? 간호사업의 내용이나 사업 행정가들의 피동적 입장에서 일까요? 아니면 간호사업을 위한 총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고 그중에 얼마만큼이 인건비에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할당되어야 하며 왜 할당되어야 하는지를 소신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적극적이고 영향력있는 참여는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호사업이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며 또 그것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힘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명해야겠으며 원활한 간호사업을 위해 병원, 정부 또는 지역사회에 타당한 예산 책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국고 보조도 요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간호원 우리 스스로가 향상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호원으로서 경제문제, 노사문제, 전문직업인 조직체 운영에 대한 문제등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만약 그런 전문가가 없다면 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 양성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러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간호원의 경제적 지위보장을 위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간호를 직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아는 전통적 사고에 대안되어 있는 한 경제적 보장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간호는 분명 하나의 독립된 전문 직업이며 희생과 봉사를 직업철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따라서 간호원의 경제적 보장 및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전국 간호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열의가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간호교육 제도의 재 정비가 필요합니다. 재래의 '병원 소속, 병원 위주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서 단일 체제의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대한간호협회 내에 간호원 경제보장 위원회의 발족을 촉구합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

- A) 전국 간호원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B) 간호원의 복지를 보장할만한 구체적 활동 내용 및 조직 구성.
 - C)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 단기교육, 세미나, Workshop 개최.
-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모든 방안의 실현을 위한 빠른 길은 개개 간호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그 위에 강력하고 활동적인 간호원 지도단체가 위치 할때 간호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본고는 서울시 지부 제23회 정기총회의 주제 강연 초록입니다. 「간호원과 경제 문제」의 주제 아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 모임 교수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이 현재 박사의 강연이 있었으나 이 현재 박사의 주제 강연을 동시에 게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각 지부 총회의 주제는 서울시 지부의 그것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국의 본협회회원들의 공동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각지부는 앞으로 지부총회에 대한 일반 보고와 함께 주제 강연 원고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